

[ 여수·순천·광양 ]

“여자灣 적조 원인은 지하수”

“하루 260만 유입 영양염류 과잉 공급...생태계 변화”

서울대 김규범교수팀

지하수가 여자만에서 발생하는 적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 김규범 교수팀은 최근 ‘한반도 연안해역에서 해저 지하수 유출의 환경 생태학적 중요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해마다 유해성 적조의 시작을 알리는 여자만의 경우 하루 260만 리터의 지하수가 가장 큰 영양염류 공급원으로 적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남해의 여러 내만 해역에서 연안의 오염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과잉의 영양염류가 공급돼 적조 등 생태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해저 지하수 유출을 고려한 연안 오염 부하량 측정, 적

조 흡수율 무기 영양염이 낮아 규조류의 증식이 제한되고, 적은 생물로부터 유기 영양염류를 이용할 수 있는 와편모조 적조가 번성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반폐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여자만의 경우 지하수가 오랫동안 모이는 역할을 해 지하수에 의한 영양염이 다른 해역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조가 발생하는 만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지하수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하수가 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 연안환경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GS칼텍스 허진수 사장이 14일 여수 거북공원에서 열린 제13회 GS칼텍스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GS칼텍스 어린이 글쓰기 대회 5천여명 참여 성황

‘제 13회 GS칼텍스 어린이 글쓰기 대회’가 14일 여수시 학동 흥국체육관과 거북공원에서 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남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자리잡은 ‘GS칼텍스 어린이 글쓰기 대회’에는 여수, 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소재 90개 초등학교 어린이 5천여명이 참가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주어진 글제에 따라 글솜씨를 겨뤘다.

이날 행사는 GS칼텍스의 푸짐한 상품과 함께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돼 참가 어린이들은 물론, 인솔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글쓰기 본 행사에 이어 자연생태체험전, 놀이기구체험마당 등 흥겨운 축제공연을

이 펼쳐졌다. 또 가수 이승기와 박주희, 푸미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에는 열띤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특히 뽀빠리와 나비 등 갖가지 곤충들이 전시된 생태체험과 페이스페인팅, 어린이 놀이기구 체험,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공간이 마련돼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인대상 : 저학년 시부-최형욱(여도초등 1), 고학년 시부-장원영(여도초등 4), 저학년 산문부-장성수(여도초등 2), 고학년 산문부-최승현(도원초등 6) ▲단체상 : 대상-여수 한려초등, 금상-여수 안산초등, 은상-여수 용촌초등, 특별상-여수 여도초등, 지도교사상-배승(여수 한려초등),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준공된 지 1년 된 광양항 매립지에 지난 침하가 진행되면서 이 매립지에 준공된 대형 활인점 주차장 경계석들이 마치 물결 모양으로 움푹 꺼져있고 도로도 패어 있다.

준공 1년 광양항 매립지 침하

850억 들여 19만평 매립...건물·도로 균열 피해

준공된 지 1년 밖에 안된 광양항 매립지에 침하현상이 발생,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14일 광양항 매립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850억원을 들여 광양시가 지난해 4월 준공한 19만평의 광양시 중동 광양항 매립지 곳곳에 지난 침하 현상으로 인한 건물 및 도로 균열 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광양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의 주차장 노면은 건물의 무게를 따라 최고 30cm까지 움푹 꺼져 있고 건물 외벽은 갈라진 틈을 막느라 노퍽 뿔집 투성이다.

인근의 대형 활인매장도 주차장과 진입출로 바다가 움푹 패이고 경계석이 갈라지는 등 불행사나운 모습이다.

개장 한지 8개월 밖에 안된 이 활인매장은 지난 침하로 인한 보수 공사로 현재까지 3억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침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원래 바다였던 매립지 부지를 조성하면서 연약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조성을 한 광양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약 지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분양 당시 연약지반 처리는 토지 소유자가 하도록 계약을 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하지만 업체들도 건물 부지간 연약지반 처리를 하지 녹지공간이나 주차장 등은 연약 지반 처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자치단체나 업체 모두 연약 지반 처리 비용을 아끼려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꼴이 됐다. 더욱이 시가 조성할 때 받은 이자로 낮춰 분양을 하면 분양가도 그만큼 떨어져 분양이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연약 지반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를 사용할 때 소유권자가 연약 지반 처리를 하도록 했는데 하지 않아 이런 일이 터진 것”이라며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라 시에서 다시 투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민선 3기 여수지역 시·도의원 公約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형 ‘空約’

경실련·YMCA 이행 조사

민선 4기 출범을 위한 5·31 지방선거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선 3기 여수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내건 공약 대부분이 책임감 없고 확대·홍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장의 공약 110건 중 34건은 추진 목표가 불분명했고 도의원의 경우도 평가가 가능한 공약은 30건 중 11건에 불과해 공약(公約)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여수 YMCA는 지난 12일 민선 3기 시장 및 시·도의원 공약 이행 상황 조사 결과를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의원 3명의 공약 30건 중 50%가 넘는 17건이, 시의원 27명의 공약 272건 중 61%에 달하는 167건의 공약이 단순 예산 건의 또는 요구 수준에 그쳐 자기 책임감이 없는 무임승차형 공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이에 따라 대다수 시·도 의원들이 공약에 대해 자기 직접 과제를 만들고 이행해 나가는 것보다 이미 추진계획을 갖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확대·홍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장의 공약 110건 중 34건은 추진 목표가 불분명했고 도의원의 경우도 평가가 가능한 공약은 30건 중 11건에 불과해 공약(公約)이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경실련 박효준 사무국장은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당선자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와 목표, 수행 방안을 요구해 공약 실천 여부를 분명하게 적시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 매년 실천 여부를 조사한 뒤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지역 단신/

여지만 사고막 채묘작황 양호

여에서만 발생하는 사고막이 5년만에 풍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14일 “보성 여자만에서 생산된 사고막 채묘작황이 양호해 올해 풍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겨울철 동해 방파제 등 어업인들이 어장 관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아직까지 종패 살포가 이뤄지지 않은 어장은 종패살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청결·질서·친절·봉사 4대 시민운동

여수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를 위해 청결·질서·친절·봉사운동 등 4대 시민운동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총괄책임관으로 하고, 4대 운동 분야별 추진책임관을 해당 국·소장으로, 엑스포시민운동추진협의회를 자문기구로 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주체별 역할 분담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엑스포 4대 시민운동 가운데 ▲청결운동은 청결한 거리 조성, 청정하천 가꾸기 등 19개 항목 ▲질서운동은 노점상 집중정비, 교통질서 지키기 등 8개 항목 ▲친절운동은 재래시장 상인 친절교육, 운수업체 친절교육 등 8개 항목 ▲봉사운동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11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포스코 광양제철소 견학 줄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방문객들의 견학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 학습 등이 많아지면서 광양제철소를 찾는 견학자도 늘어 5월에만 11일 현재 1만9천360명이 다녀갔다. 11월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5천여명이 견학했다. 광양제철소의 철강 생산공정 견학은 1981년부터 시작됐고 현재까지 총 463만여명이 다녀갔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Lists various numbers and names.

대인동십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시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원장부지 80평 4천200원 28억. 원장부지 110평 4천 27억.

믿음공인중개사. 상가건물 매도. 청담쌍안동, 원계동, 삼전지역. 대지 570평 건물 1640평 보10억 원세 2200만원 매도가 56억.

하이링크 컨설팅. 병원, 학원, 공장, 아파트, 교회, 골프연습장. 주유소등 각종투자용 부동산을 구매드립니다.

전원공인중개사. 토지매도. 광안구 송정동 시랑빌딩~송정역시 6차선 도로점 50평 평당 300만원.

한일지도(주). 2006 최신 광주시 지번도 책 판매중. ★ 체크된 부분은 타사와 비교 환영. 이전에 새로 나온 광주시 책은...